

윤석열 재구속에 ... 민주 “단죄의 시간” 국힘 “과거와 단절”

與, 여죄 규명·법정 최고형 촉구...국힘, 사죄문 당헌당규 수록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완전 결별을 사실상 선언하고 나섰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그 우두머리로 규정해온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는 치밀한 여죄 규명을, 사법부에는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와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알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며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올해 연말 온전한 민주주의의 국가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하통신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의 당헌·당규

수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주요 공직·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제 도입 등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혁신위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희숙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 과거와의 단절”이라며 “이를 위해 잘못된 과거가 뭔지 명시하고 어떻게 할지 확실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 맨 앞장에 새겨넣을 것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전 당원 찬반 투표에 부칠 ‘국민·당원께 드리는 사죄문’ 내용도 공개했다.

사죄문에는 ‘내란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첫머리에 담겼다. 이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나와 있다.

사죄문에는 또 ‘계파 중심 당 운영’·‘당 대표 강제 퇴출’·‘대선후보 강제 단일화’·‘총선 참패 후 새신 살해’ 등도 사죄 대상으로 포함됐다.

혁신위는 사죄문과 함께 ‘새 출발을 위한 약속’도 당헌·당규에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문안은 ▲ 신뢰받는 정당이 될 거듭된 혁신 ▲ 당원·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중심 정당 ▲ 사익추구·우리 편 감싸기 정치문화 탈피 및 자정능력 회복 ▲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 강화 등 ‘4대 약속’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잘해봅시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 원내대표인 김병기 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싸움은 내가” vs 박찬대 “검증된 리더십”

與, 당대표 후보 등록 본격 선거 운동...최고위원, 황명선 의원 출마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전수 순)이 10일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일인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태평성대라면 제가 아니어도 좋지만,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며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정 후보는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를 포함한 ‘당원주권정당’과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 시스템 등도 공약했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일인 이날은 충청 지역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혔다.

충남 금산 출신인 그는 이날 충북·대전을 오가며 당원 간담회를 열고 “첫날은 고향에서 시작해 신고식을 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더 낮고 겸손하게 현장을 뛰며 국민과 당원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당·정·대 원팀 정산’을 언급하면서 “제가 당정대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원팀 정산이 필요한 이유로 “야당 시절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폭정에 대한 투쟁은 국민의 명

령이었고 이제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여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국가를 재건하라는 다른 명령을 주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역시 당원 주권 정당으로의 개혁을 공약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 후보는 ‘온라인 주주총회’ 생방송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물론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친이재명계인 두 후보는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도 경쟁했다.

8·2 전당대회에서 함께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조선 황명선 의원만 출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경수 “5극 3특’ 전략으로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세종 행정수도 완성 위해 법 제도 정비”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돼 반드시 필요하다고 세종시민들의 이해도 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힘 광주 지역위원장 2파전...8년만에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 오랜만에 국민의힘 광주지역위원장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14일까지 접수받는다.

국힘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이 연임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안대욱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후보 접수기간이 남아있지만 두 후보의 경선이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가장 최근 경선이 진행된 것은 2017년으로 8년만에 경선으로 지역위원

장을 뽑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도 후보등록 마감일인 14일께 출마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경선은 18일 열릴 예정이며, 각 지역 당협위원회별 유권자 수와 여성·청년 비율 등을 반영해 구성된 책임당원 대의원이 모바일 투표(Kvote)로 직접 선출한다.

한편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화진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14일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김 위원장은 연임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찬대, 내일 DJ센터 토크콘서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광주에서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박 후보는 12일 오후 6시 30분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민주당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민주당 박주민·박선원·노종면·김기표·김용만의 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와 민생·경제회복 방안,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호남인재 등용 등 지역의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